**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 만들기**

공식적으로, 장로교 판아메리카스쿨(PPAS)은 텍사스 킹스빌에 위치한 기독교 국제대학 예비 기숙학교이지만, 아델라이트 하테게카에게 있어서 그 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가족들로 가득 찬 제 2의 집이다.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공동체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요. 선생님들도 인내심이 강해서 너무 좋아요. 처음 갔을 때는 영어를 잘 몰랐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지요.

아델라이트는 팬암에서 3학년을 막 마쳤는데, 팬암이란 애칭이다. 그녀는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새로운 직업을 얻은 후 겨우 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과 함께 니제르로 이사했다. 팬암에서의 4년 째,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캠퍼스 사역 회장으로 그리고 임의의 친절 행위(Random Acts of Kindness)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캠퍼스 사역 회장으로서 저는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화요일 및 목요일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지요"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고, 모금 아이디어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캠퍼스 사역 협의회와의 회의도 기획해요"라고 덧붙였다.

캠퍼스 사역은 교수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글을 써서 보내는 임의의 친절 행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는것을 확실히 하였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요."라고 아델리테는 말한다. "간단한 쪽지를 받는 것은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을 돌보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해를 끼치기보다는 좋은 뜻을 위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팬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사랑과 봉사, 공동체라는 기독교적 이상을 지지함으로써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삶과 직업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델리테가 원하는 것이기에, 그녀는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통해 받은 장학금에 감사한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스틸만 칼리지, 장로교 팬아메리칸 스쿨, 메나울 스쿨에 재학 중인 젊은이들과 연계해 조만간 우리 교회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유색인종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경험하는 교회 사역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한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조금씩 보태면—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변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선물과 우리가 나누는 선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